

[글로벌 AI]

권영배, CFA

yb.kwon@miraeeasset.com

[반도체]

김영건

younggun.kim.a@miraeeasset.com

[글로벌 AI 인프라]

장다현

dahyun.jang@miraeeasset.com

[글로벌 AI]

김수민

sumin.kim.b@miraeeasset.com

One-Asia Tech Strategy

10월: 수확의 계절

- 확산되고 있는 실적 상승, 어닝시즌 돌입하며 강한 펀더멘털 재확인될 것
- 투자 가능한 자산이 된 GPU, 데이터와 수익모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Muse
- 테크 투자의 핵심은 한국 메모리, 확산은 아리스타 네트워크로 대응

9월 리뷰: 안정과 확산

지난 9월 글로벌 테크 업종 주가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실적전망이 대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멀티플의 확대가 나타났다. 서버시스템/부품 그룹은 Dell과 HPE의 실적발표 후 강한 이익전망 상승이 나타났다. AI 투자가 AI 인프라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인텔(+34%), AMD(+31%)는 프로세서/컴퓨터 그룹의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에이전틱 AI 수요 증가로 GPU, 메모리에 이어 CPU가 관심 받으며 멀티플 상승이 빠르게 나타났다. 한국 메모리는 환율 급락을 선제적으로 반영했으나, 실적전망 하향 폭은 미미했다.

어닝시즌 돌입, 강력한 펀더멘털과 주주환원 의지 확인될 것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어닝시즌에 돌입했다. 마이크론은 87% 달하는 GP마진과 27년 HBM 판가 인상을 언급하며 높은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또한 강한 주주환원 의지를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곧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발표에서도 높은 실적 가시성, 주주환원 의지 등이 확인될 전망이다. 특히 환율과 금리 등 거시적 요인으로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HBM 판가 인상, 수급타이트 장기화 등이 재부각되며 실적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고금리를 이겨낼 칩파이낸싱, 그리고 Muse

젠슨 황은 “엔비디아 컴퓨트는 그 자체로 투자 가능한 자산(investable asset)”이라고 강조하며 칩을 담보, 리스, 유동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규정했다. 칩 파이낸싱을 통해 위험선호도와 요구수익률이 다른 자본을 참여시켜 AI 투자의 총 조달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칩 파이낸싱: GPU 투자 자산이 되다’, 2026년 9월 18일, 김영건, 김수민 참고). 고금리가 두렵지 않다. 한편, 최근 출시된 메타의 Muse는 AI 기술력과 독점적인 데이터가 결합하여 높은 수익창출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왔듯, AI 산업에서 독점적 데이터와 수익 모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One-Asia 테크 포트폴리오

우리는 한국 메모리(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테크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지속 추천한다. HBM 고도화 국면에서 이익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장기적이고 강력한 주주환원을 기대한다. 아리스타 네트워크(ANET US)는 AI 설비투자의 수혜가 확산되며 실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중요하다. 그리고, 풀스택 AI로 강한 AI 역량과 독점적인 데이터, 수익모델을 모두 갖춘 알파벳(GOOG US)을 추천한다.

I. 9월 리뷰: 반등하며 어닝시즌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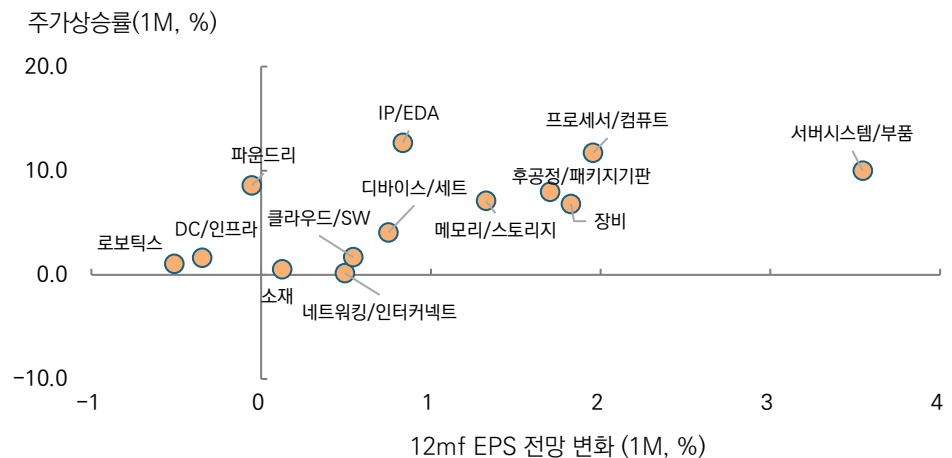
안정을 되찾은 글로벌 테크 업종은 9월 들어 반등했다. 최근 1개월 13개 그룹 중 10개 그룹의 12MF EPS 전망이 상향됐고, 110개 종목 가운데 79개(72%)에서 EPS 전망이 올랐다. 1개월 주가는 13개 그룹 모두 상승했고, 67개(61%) 종목이 상승했다.

그룹별 EPS 리비전과 주가수익률을 살펴보면, 서버시스템/부품은 EPS +3.5%, 주가 +10.0%로 13개 그룹 중 이익 상향폭이 가장 컸다. 실적발표 이후 Dell과 HPE의 EPS 전망이 크게 상향되었는데, 두 회사 모두 매출과 수주잔고에서 큰 상승폭을 보이며 AI 투자가 학습용 GPU를 넘어 AI 인프라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익성 개선도 동반되며 하드웨어 업체들이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 외 그룹은 이익보다 멀티플 확대가 상승을 주도했다. OpenAI와 Meta가 쏟아올린 에이전틱 AI의 대중화 기대가 테크 업종의 반등을 이끌었다. 9월 3일 OpenAI의 GPT-6 Astra 공개에 이어, 8일 출시된 메타의 Muse는 미국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에 오르고, 여러 지표에서 ChatGPT의 초기 확산 속도를 앞서는 흥행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곧바로 CPU로 눈을 돌리며 인텔, ARM, AMD가 동반 급등했다. 프로세서/컴퓨터 그룹은 EPS +2.0%, 주가 +11.7%를 기록했는데, 엔비디아(+5.1%)보다 인텔(+34.4%), AMD(+31.4%), 미디어텍(+23.5%)이 상승을 주도했다. IP/EDA도 ARM(+21.2%)을 중심으로 EPS +0.8%에 주가가 12.7% 올랐다. 메타 역시 25.6% 상승하며 클라우드/SW 그룹 안에서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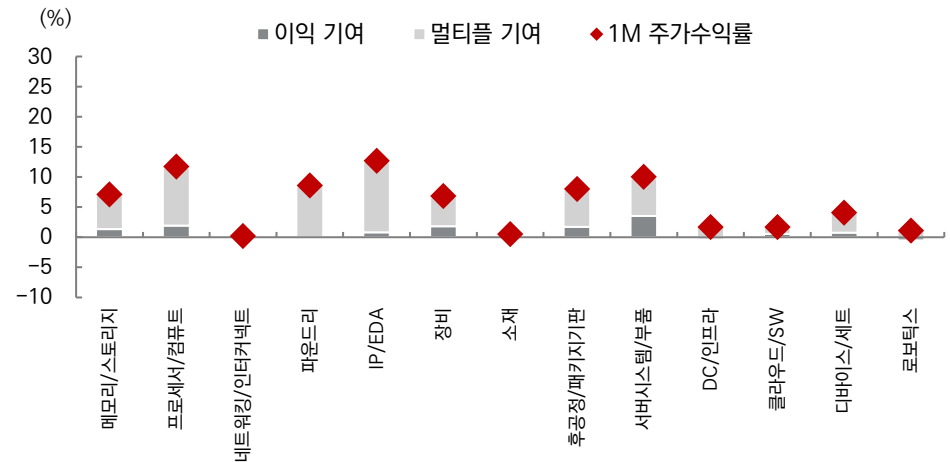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10월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업황 개선과 실적 가시성을 확인해갈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국 10년물 5.2%, 30년물 5.5% 도달 등 장기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등 매크로 부담이 남아있다. 하지만, 환율 등 매크로 요인이 실적전망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발표 이후 추가적인 하향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림 1. 1개월 주가상승률 vs. 12개월 선행 EPS 전망 변화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기준일자 26.09.30, 그룹별 시총가중 평균 적용

그림 2. 주가 수익률 분해 = 이익변화 vs. 멀티플 변화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기준일자 26.09.30, 그룹별 시총가중 평균 적용

표 1. 그룹별 12개월 선행 이익전망치 변화, 밸류에이션, 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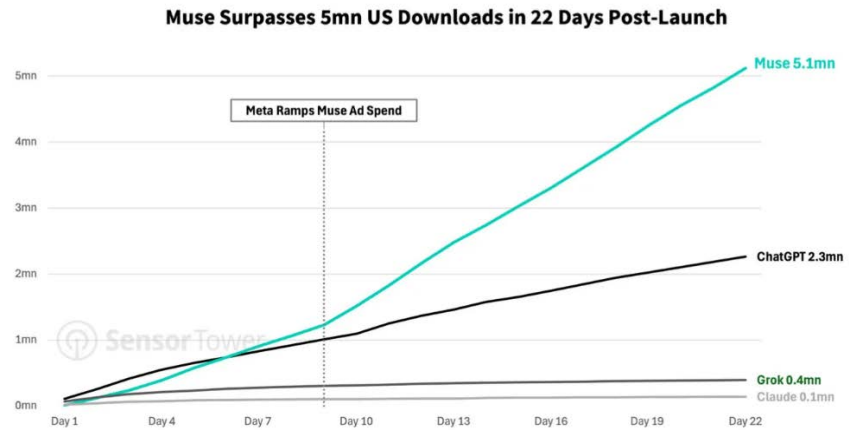
그룹	그룹명	개수	12mf EPS Revision (%)			12mf PER		12mf PBR		Performance (%) *로컬통화기준					
			1W	1M	3M	시총가중	중앙값	시총가중	중앙값	1W	1M	3M	6M	1Y	YTD
1	메모리/스토리지	11	0.2	1.3	8.1	5.7	6.7	2.9	3.9	(3.7)	7.1	(19.7)	135.9	474.2	228.1
2	프로세서/컴퓨터	9	0.0	2.0	18.8	20.2	43.8	10.3	11.3	0.2	11.7	10.1	80.9	85.1	68.5
3	네트워킹/인터넷	13	0.1	0.5	6.2	22.6	27.0	8.9	9.1	(0.6)	0.2	(8.5)	47.7	58.2	39.8
4	파운드리	5	0.1	(0.1)	10.3	22.5	22.0	6.7	3.3	1.6	8.6	(6.4)	46.5	65.3	52.7
5	IP/EDA	3	0.2	0.8	2.3	55.2	35.9	8.8	11.5	(6.1)	12.7	(14.4)	77.8	63.8	105.3
6	장비	13	1.0	1.8	16.7	31.8	32.7	15.1	14.3	5.4	6.8	(19.6)	50.1	114.5	77.7
7	소재	7	(0.2)	0.1	2.6	22.3	21.1	3.2	3.2	4.3	0.5	(14.0)	10.7	55.6	42.9
8	후공정/패키지기판	12	0.5	1.7	17.5	28.5	24.7	4.6	5.8	3.8	8.0	(0.3)	111.1	376.8	245.5
9	서버시스템/부품	9	0.4	3.5	22.9	16.9	14.0	4.9	4.1	(0.9)	10.0	7.5	163.8	236.1	225.3
10	DC/인프라	7	0.1	(0.3)	8.0	30.2	38.8	5.3	7.0	(1.2)	1.6	(13.9)	16.3	51.0	46.6
11	클라우드/SW	9	0.2	0.5	5.9	21.3	19.9	4.9	5.0	0.6	1.7	16.4	30.9	13.4	7.4
12	디바이스/세트	4	(0.0)	0.7	(0.1)	33.0	15.4	24.9	17.7	(1.3)	4.1	15.8	37.2	31.7	24.8
13	로봇틱스	8	(0.1)	(0.5)	(7.7)	89.2	155.1	7.4	5.9	(6.2)	1.1	(16.3)	(0.8)	(15.2)	(19.1)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기준일자 26.09.30, 그룹별 시총가중 평균 적용

II. 뮤즈가 선보인 에이전틱 AI, 컴퓨팅 수요는 더 커질 것

메타가 9월 8일 공개한 Muse는 AI 에이전트를 개인용 서비스로 구체화했다. Muse는 메타가 가진 강력한 컴퓨팅 자원을 기반으로 사용자별로 RAM 8GB와 디스크 공간 8GB를 갖춘 전용 클라우드 가상머신과 브라우저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대신 앱을 실행하고, 쇼핑, 결제, 탐색, 업무, 투자 등이 모두 가능하며, 사용자가 앱을 닫은 뒤에도 과제를 이어갈 수 있다. 별도의 Sentinel 에이전트가 외부 행동을 점검하고 민감한 작업은 승인을 받기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제시한다. 출시 일주일여만에 아이폰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고, 여러 지표에서 ChatGPT의 초기 모바일 출시 속도를 앞서고 있으며, 사용자 참여도 역시 Muse가 더 빠른 속도를 보이는 중이다.

그림 3. Muse, 출시 3주 만에 500만 다운로드 돌파



자료: Sensor Towe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메타는 Muse를 무료 배포하며, OpenAI와 Anthropic이 API와 구독으로 AI 지능 자체를 수익화하는 방식과 다른 방향에서 수익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사용자가 소비하고 탐색하는 길목에서 광고와 결제로 돈을 버는 방식이다.** 인스타그램 등 메타의 주력 앱을 통해 공급되는 양질의 독점적 데이터로 Muse는 차별화된 답변(추론)을 제공할 수 있다. 저커버그는 "매우 많은 양의 토큰을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가 발생할 때 소액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 수수료 모델은 무료 토큰의 원가를 오래 버틸 체력이 필요하다. **자체 광고 현금흐름을 가진 메타와 구글, 유통망을 갖춘 아마존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에이전트는 소비자의 귀찮음과 무관심, 즉 소비자 관성을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통신, 구독형 서비스, 금융, 여행플랫폼 등은 역사적으로 소비자의 전환 마찰과 관성 위에서 현금흐름을 창출해 왔다. 그러나, AI 에이전트는 소비자에게 정보 탐색 비용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가격 비교, 구독 최적화, 서비스 전환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가 봇 차단이나 인증 강화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AI가 소비자 시장에서 거대한 채널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에 따라 단순 소비자 관성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가격 압박 및 비즈니스 모델 훼손 우려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이전트 상용화에 따른 컴퓨팅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장기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에이전트는 사람이 질문할 때만 작동하는 챗봇과 달리 24시간 돌아가며 스스로 추론하고 도구를 호출한다. 그만큼 사용자 1인당 컴퓨팅 소모량이 구조적으로 커진다. 특히 앱 실행, 브라우저 구동, 샌드박스 운영 같은 에이전트 작업은 GPU 추론뿐 아니라 CPU 수요를 함께 끌어올린다. Muse 출시 이후 AMD, 인텔, ARM 등 CPU 관련 종목이 동반 상승한 것도 이 논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에이전트 보급이 본격화될수록 메모리, GPU, CPU, 네트워킹, 서버, 고성능 기판, 부품 전반의 공급 부족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III. 칩 파이낸싱,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새로운 조달 창구

2026년 8월 엔비디아는 아폴로,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 등 6개 대형 금융기관과 함께 최대 \$500B 규모의 컴퓨트 금융 플랫폼 구축 MOU를 체결했다. 브로드컴 역시 아폴로, 블랙스톤과 \$35B 규모의 엔트로픽향 칩 리스 SPV를 설계했다. 글로벌 최대 AI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칩을 담보로 하는 금융 구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 하이퍼스케일러조차 영업현금흐름으로 Capex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병목이 칩 공급에서 자금조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 컴퓨트는 그 자체로 투자 가능한 자산(investable asset)”이라고 강조하며 칩을 담보, 리스, 유동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규정한다.

칩 파이낸싱은 GPU와 장기 고객계약을 묶어 미래의 컴퓨트 사용료를 현재의 설비 구매자 금으로 전환한다. 우량 고객의 장기계약과 칩 벤더들의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구조화시킨 자산은 투자 한도가 사업자의 보유현금 및 자체 차입능력에서 은행, 보험사, 연기금, 사모신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체의 위험수용 능력으로 확대된다.

또한 위험을 선순위 부채와 후순위 자본으로 나누면 다양한 자금이 참여할 수 있다. **손실 보호를 받는 선순위 트랜치에는 은행·보험사·연기금·사모신용처럼 자기자본보다 요구수익률이 낮은 자금이 들어오고, 그만큼 프로젝트 전체의 가중평균 조달비용이 내려간다.** Broadcom-Anthropic SPV 사례에 적용하면 칩 파이낸싱 구조의 조달비용은 전액 자기자본 대비 약 750bp 낮아지고, 같은 투자의 연간 자본회수 부담은 17.5%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조달 구조 변경에 따른 경제성 개선 효과가 최근 AI 관련 채권의 스프레드 확대폭을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기 AI 투자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를 일부 덜어줄 수 있다.

엔비디아는 이 금융 구조의 설계자이자 수혜자다. 당사는 엔비디아에 대해 ‘매수’의 투자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282(기존 \$265)로 6.4% 상향했다 (‘엔비디아 - 안팎으로 좋은 분위기’, 2026년 9월 18일, 김영건). AI 투자 병목이 GPU 공급뿐 아니라 고객의 자본 조달 능력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프론티어 AI 랩과 네오클라우드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엔비디아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다. FY2Q27 AI Cloud & Enterprise향 매출은 \$40B(QoQ +172%)로, 하이퍼스케일향 매출 \$49B(QoQ +18%)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조달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곧 잠재수요를 실질 매출로 전환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Vera Rubin을 중심으로 CPU·네트워킹·스토리지를 함께 공급하는 풀스택 전략에 따라 GW당 매출 기회는 Hopper의 \$18B에서 \$40B로 확대될 것이다. Vera Rubin의 역대 가장 빠른 침투 속 FY28도 70%대 매출 성장과 매출총이익률 73%대 회복을 전망한다.

표 2. 칩파이낸싱의 담보 평가 대상

평가 대상	주요 심사항목
계약 현금흐름	오프테이커 신용도, 계약금액, 계약기간과 대출 만기와의 일치 여부
GPU 담보가치	내용연수, 감가 속도, 계약 종료 후 잔존가치
신용보강	모회사 보증, 칩 공급자의 미판매 용량 계약(백스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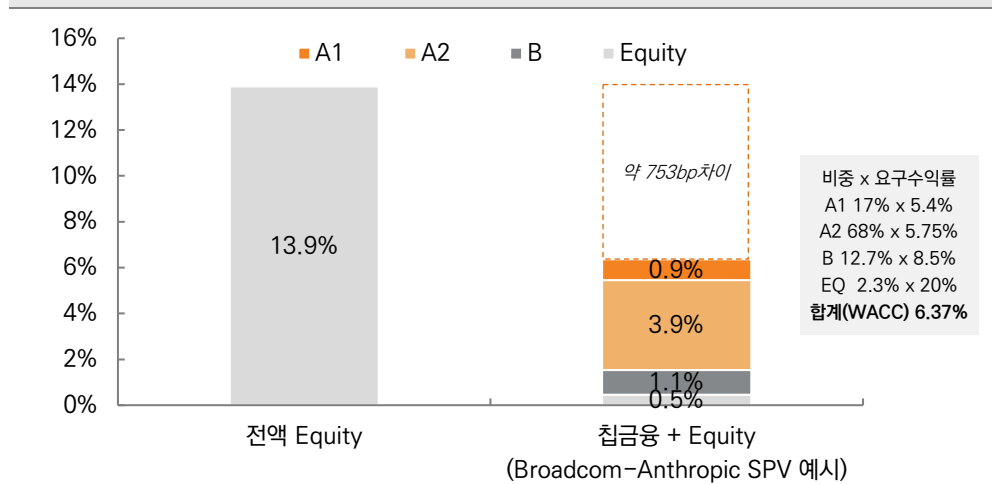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코어위브와 브로드컴 사례에서 본 담보에 따른 조달 금리

	조달수단	담보	약정액 (\$mn)	유효금리 (회사 공시)
CoreWeave	DDTL 2.1	계약담보 DDTL	3,000	9%
	DDTL 3.0		2,600	9%
	DDTL 4.0		8,500	7%
	DDTL 5.0		3,100	9%
	2030 Senior Notes	무담보 회사채	2,000	10%
	2031 9.00% Senior Notes		1,750	10%
	2031 9.75% Senior Notes		2,750	10%
	2032 9.625% Senior Notes		1,250	10%
	2032 EUR Senior Notes		2,279	9%
	트랜치	잔존가치 지원	금액 (\$mn)	금리
Broadcom SPV	A1	O	6,000	UST+100bp 변동금리
	A2	O	24,000	5.75%
	B	X	4,500	8.50%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CoreWeave DDTL 중 무담보회사채와 비교를 위해 체결일 2025년 이후의 건으로 한정

그림 4. 조달구조별 WACC (가중평균 조달비용)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세전 기준. A1은 UST 2년물 4.4%에 100bp를 더한 5.4% 가정. 전액 Equity의 자기자본비용은 CAPM 기준(무위험수익률 4.9%, 베타 1.8, 주식위험프리미엄 5.0%) 가정. 칩파이낸싱 SPV의 자기자본비용은 최후순위 손실흡수 부담을 고려해 요구수익률을 20% 가정

IV. 메모리, HBM 고도화와 고객 다변화 지속될 것

당사는 26F/27F DRAM ASP 전망치를 각각 +4.4%pt/+1.2pt 상향했으나, 원화 강세를 반영해 26F/27F 영업이익 추정치를 삼성전자는 각각 -5.7%, -4.2%, SK하이닉스는 각각 -4.8%, -5.6% 하향했다 (‘삼성전자 - HBM으로 매크로 우려 극복’, 2026년 9월 8일, 김영건; ‘SK하이닉스 - HBM 고객 다변화 본격화’, 2026년 9월 8일, 김영건). **한국 메모리는 환율에 따른 이익 변동을 감안하되, HBM 탑재량 확대와 고객 다변화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에이전트가 긴 컨텍스트를 유지하며 작업할수록 메모리의 용량과 대역폭이 중요해진다. 9/3 출시된 GPT-6 Astra는 1.05M 토큰의 컨텍스트 창을 제공하며, 속도와 가격이 각각 2배인 Fast 모드와 272K 토큰 초과 프롬프트에 대한 별도 요금을 도입했다. 추론의 디코드 단계에서는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가중치와 KV 캐시를 다시 읽기 때문에, 긴 컨텍스트는 메모리 대역폭 수요를 키운다. 속도와 컨텍스트 길이에 따른 차등 과금은 이러한 메모리 부담이 서비스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사는 2027년 HBM의 비트 출하량 증가율을 57%, ASP 상승률을 49%로 전망했다. 범용 DRAM의 출하량 증가율 16%, ASP 상승률 20%를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HBM은 물량과 가격 양쪽에서 메모리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HBM 수요의 확대는 GPU뿐 아니라 빅테크의 자체 ASIC에서도 확인된다. AMD MI455X의 HBM4 탑재량은 432GB로 전작 MI355X보다 50% 늘어난다. 메타 역시 MTIA300에서 MTIA400으로 넘어가며 HBM 용량을 216GB에서 288GB로, 대역폭을 6.1TB/s에서 9.4TB/s로 확대할 계획이다. 빅테크 ASIC의 HBM 탑재량이 칩당 216~288GB로 높아지고 HBM4 채택도 시작되면서, HBM 공급사들은 고객 다변화와 고객별 탑재량 증가의 수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

공급사들의 경쟁도 적층을 넘어 패키징과 시스템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대 48GB 용량의 12단 HBM4를 양산하고 있으며, 16단 제품은 인증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zHBM은 DRAM을 XPU 위에 배치하는 구조로, HBM5 대비 I/O 전력 70% 절감과 대역폭 2.3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한다. 아직 양산 성과와 구분해야 하지만, 대역폭 개선의 핵심이 베이스 다이와 접합 기술로 옮겨갈수록 메모리 업체의 기술적 역할과 부가가치가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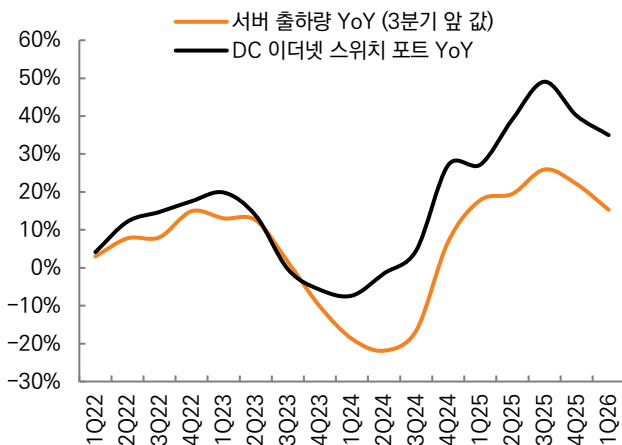
V. 서버에서 네트워크로 확산되는 AI 투자

델과 HPE의 강한 AI 서버 실적은 서버 업황을 넘어 향후 연결 인프라 수요를 읽는 선행 신호로 볼 수 있다. 델의 FY2Q27 매출은 470억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AI 서버 매출은 164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분기 신규 AI 서버 수주는 609억달러, 기말 수주잔고는 950억달러로 확대됐다. 과거 데이터에서 서버 출하 이후 DC 스위치 포트가 약 2~3개 분기 뒤 따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서버 증설은 2027년 네트워크와 광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결 수의 증가와 함께 고속화도 네트워크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1Q26 데이터센터 이더넷 스위치 포트 출하량은 전년 대비 35% 늘었지만 매출은 57% 증가했다. 포트당 매출이 268달러에서 312달러로 약 17% 높아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200G 이상 포트 출하량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서버 설치 기반 확대에 400G·800G 고속 포트로의 전환이 더해지면서, 서버당 탑재가치 상승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AI 속도조절 논의에도 컴퓨트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안전성 검증을 위한 추가 연산이 필요해졌다. AI 인프라의 초점 역시 '증설 규모'에서 '확보한 인프라의 효율적 가동'으로 이동 중이다. Llama 3 학습에서 GPU의 모델 연산 활용률은 38~43%에 그쳤고, GPU를 8천 개에서 1.6만개로 늘리자 활용률은 43%에서 41%로 낮아졌다. 살 수 있는 GPU보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 성능을 좌우하며, 추가 성능을 끌어낼 여지는 칩 자체보다 칩을 연결하는 구간에 있다는 의미다. 학습에서는 랙 내부 연결, 추론에서는 메모리와 데이터 배치가 중요해지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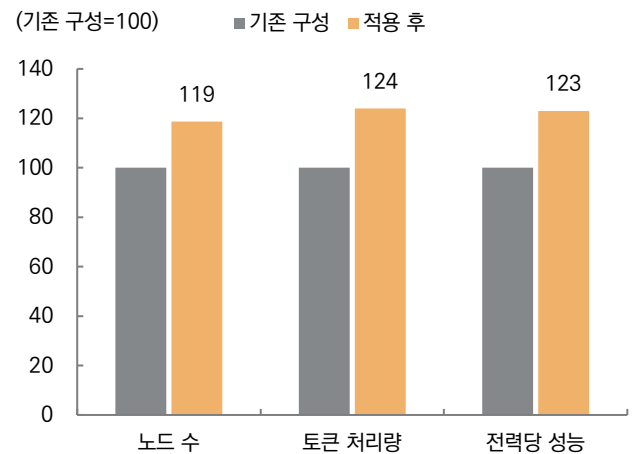
전력이 제한되면 같은 MW 안에 더 많은 가속기를 배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 포트와 광모듈 수요도 함께 확대된다. 엔비디아와 람다는 동일한 전력 한도에서 서버 노드를 16개에서 19개로 늘려 토큰 처리량을 24%, 전력당 성능을 23% 높였다. 투자 대상이 GPU 단품에서 메모리, 연결 반도체, 네트워크, 광으로 확산되는 이유다. 향후 실적은 GPU 출하량보다 가속기당 연결 콘텐츠 증가에 얼마나 직접 노출되는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다.

그림 5. DC 이더넷 스위치 포트 출하는 서버 출하를 2~3분기 후행



자료: ID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동일 전력 한도에서의 시스템 최적화 효과



주: 엔비디아와 람다의 HGX B200 실증 기준. 기존 구성(16노드 풀전력)을 100으로 지수화했고, 적용 후는 19노드를 85% 전력으로 운영한 결과. 엔비디아는 차세대 랙에서 동일한 사이트 전력 안에 GPU를 최대 40% 더 수용할 수 있다고 조건부로 제시
자료: 엔비디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VI. One-Asia 테크 포트폴리오

우리는 한국 메모리(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테크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지속 추천한다. HBM 고도화 국면에서 이익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장기적이고 강력한 주주 환원이 기대된다. 이미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져 거시적 위험도 충분히 반영한 상태다. 밸류에이션과 주주환원 여력이 크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AI 투자에 대한 수혜가 GPU와 메모리에 이어 주변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ANET US)는 이미 빠른 실적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이런 확산에 대응하는 좋은 투자처다.

메타 Muse의 성공에 대한 저커버그의 코멘트는 중요하다. 인스타/페이스북에 쌓여있는 독점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결국 AI의 핵심은 데이터와 수익모델인데, 이 모든 것을 갖춘 알파벳을 우리는 선호한다.

표 4. One-Asia Tech 포트폴리오

종목	티커	투자 의견	목표주가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 KS	매수	400,000원	이익 안정성에 기반한 주주환원 가능성 부각
SK하이닉스	000660 KS	매수	3,100,000원	27년 HBM 가격 상승 및 이익기여 예상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	3191 HK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익스포저
나우라	002371 CH	매수	1,100위안	선단공정 증설과 국산화가 만드는 장비 수요
알파벳	GOOGL US	매수	USD 500	풀스택 AI, 클라우드 점유율 상승
아리스타 네트워크	ANET US	매수	USD 330	데이터센터 증설(Q)과 800G, 1.6T 전환(P) 수혜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One-Asia Tech Universe

표 5. One-Asia Tech Universe

그룹명	국가	회사명	시가총액 (조원)	12mf EPS revision (%)			Multiples (x)		Performance (%) (로컬 통화 기준)				
				1W chg.	1M chg.	3M chg.	12mf PER	12mf PBR	1W	1M	3M	6M	YTD
1 메모리/스토리지	미국	마이크론	1631	1.1	2.9	4.2	6.7	3.9	-0.6	14.2	-7.7	231.0	273.4
1 메모리/스토리지	한국	삼성전자	1570	-0.1	-0.7	5.4	4.2	1.8	-6.0	4.7	-19.4	51.9	123.7
1 메모리/스토리지	한국	SK하이닉스	1297	-0.3	-0.4	1.1	4.1	2.1	-4.6	7.1	-32.7	102.6	173.0
1 메모리/스토리지	중국	CXMT	752	0.0	4.8	-	12.6	6.6	-6.5	-6.5	-	-	-
1 메모리/스토리지	미국	Sandisk	345	-0.0	0.3	11.5	7.7	6.1	-4.2	17.2	-23.5	203.9	633.0
1 메모리/스토리지	미국	Seagate	283	0.2	0.6	33.2	22.4	19.6	-0.1	11.2	-4.3	154.9	236.0
1 메모리/스토리지	일본	Kioxia	257	0.3	4.0	17.0	4.3	3.2	-0.5	13.3	-39.5	171.2	420.2
1 메모리/스토리지	미국	Western Digital	212	0.3	1.9	12.4	19.5	11.8	-4.1	-1.1	-28.8	80.7	164.1
1 메모리/스토리지	대만	Nanya	76	0.6	4.2	51.2	5.3	2.7	0.8	-3.9	15.1	136.1	169.8
1 메모리/스토리지	중국	GigaDevice	51	0.0	0.3	78.8	17.0	5.2	-11.2	-10.8	-56.6	38.5	65.4
1 메모리/스토리지	대만	Winbond	34	0.0	-1.8	49.6	3.9	2.0	4.1	-1.1	-13.5	93.0	118.4
2 프로세서/컴퓨트	미국	엔비디아	7464	-0.0	2.4	19.4	16.7	11.3	1.3	5.1	14.3	38.6	22.7
2 프로세서/컴퓨트	미국	AMD	1354	0.3	1.1	13.0	45.3	11.1	-0.5	31.4	5.3	212.1	185.7
2 프로세서/컴퓨트	미국	인텔	862	-0.1	-0.1	35.7	62.2	5.1	-1.9	34.4	-13.9	191.9	225.8
2 프로세서/컴퓨트	대만	Mediatek	336	0.1	1.7	11.4	39.8	14.7	-5.1	23.5	16.6	227.8	252.8
2 프로세서/컴퓨트	미국	Qualcomm	262	-0.1	-0.2	-6.8	18.2	7.6	-6.7	12.7	0.1	46.2	9.3
2 프로세서/컴퓨트	중국	Cambricon Technologies	128	0.3	1.0	-0.8	57.7	25.4	-8.5	-3.6	-36.8	49.1	11.0
2 프로세서/컴퓨트	대만	Global Unichip	46	0.0	14.9	30.1	70.8	29.1	-4.1	33.7	65.9	249.6	280.1
2 프로세서/컴퓨트	중국	Rockchip Electronics	18	0.0	0.0	19.9	43.8	13.2	-3.3	21.9	15.1	45.1	21.8
2 프로세서/컴퓨트	대만	Alchip Technologies	14	0.0	1.1	4.2	21.1	4.9	-0.5	-7.3	-9.8	37.1	7.4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미국	브로드컴	2273	0.0	0.1	-0.1	18.9	9.4	-1.1	-4.6	-6.9	20.1	2.0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미국	Cisco	575	0.0	0.0	6.3	20.8	7.5	1.1	-2.1	-8.0	41.0	41.8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미국	Arista Networks	348	0.2	0.3	16.6	41.5	11.8	0.1	4.2	19.8	75.3	55.4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미국	마벨 테크놀로지스	314	0.1	1.0	8.0	44.4	11.1	1.3	22.0	-11.3	201.1	211.4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미국	암페놀	282	0.0	0.5	14.4	27.0	9.0	2.6	7.1	-4.2	41.9	25.4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중국	Innolight Technology	194	0.0	2.8	21.9	16.9	8.1	-12.4	-5.8	-36.3	37.4	32.7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미국	Corning	180	-0.2	0.4	3.0	37.8	9.1	-0.5	3.4	-39.7	20.0	76.5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미국	Lumentum	118	0.5	0.9	18.3	39.2	11.0	3.7	8.5	13.2	48.3	163.5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미국	Astera Labs	84	2.5	2.5	44.1	60.7	21.7	-1.2	23.0	-26.3	255.0	114.0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미국	Coherent	76	0.2	0.2	14.8	26.8	4.6	-4.3	3.1	-27.0	31.0	55.9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일본	Sumitomo Electric	63	0.0	1.0	3.1	18.6	2.4	12.4	7.3	-20.1	3.9	49.5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중국	Montage	51	0.0	7.8	9.3	45.7	11.5	-9.4	-5.0	-34.6	53.6	72.1
3 네트워크/인터커넥트	미국	Credo	50	0.3	0.9	7.3	24.9	8.5	0.5	-16.3	-28.4	121.8	35.4
4 IP/EDA	미국	Arm	420	-0.0	1.0	2.0	108.4	25.8	-12.9	21.2	-18.3	111.5	165.0
4 IP/EDA	미국	Cadence	123	0.1	0.1	1.9	35.9	11.5	6.8	-3.0	-12.0	21.9	5.6
4 IP/EDA	미국	Synopsys	113	1.0	1.1	3.4	24.7	2.4	5.3	-1.7	-2.5	13.5	-7.4
5 파운드리	대만	TSMC	3209	0.1	0.2	9.2	22.0	7.7	2.2	9.6	-4.2	44.9	51.3
5 파운드리	중국	SMIC	121	0.0	-0.9	29.4	35.3	2.5	-4.9	-13.5	-32.2	18.0	-15.1
5 파운드리	대만	UMC	83	0.0	-0.0	31.0	21.4	4.1	-3.4	18.8	-4.5	175.7	219.1
5 파운드리	중국	Hua Hong Semiconductor	60	0.0	-10.4	7.1	81.0	3.3	-7.7	-12.6	-51.0	29.3	41.9
5 파운드리	미국	Globalfoundries	36	0.0	0.1	3.8	19.7	2.1	3.2	7.3	-41.7	16.3	37.8
6 장비	네덜란드	ASML	954	-0.0	0.8	21.6	32.7	18.1	3.8	6.8	-8.8	45.0	70.2
6 장비	미국	Lam Research	558	-0.0	0.1	18.2	32.6	18.6	6.9	8.9	-24.1	64.6	92.5
6 장비	미국	Applied Materials	550	0.1	1.6	10.9	27.9	12.5	7.8	10.8	-29.2	58.6	99.7

6	장비	미국	KLA	345	0.0	0.4	6.7	33.5	22.7	3.8	11.0	-35.3	41.3	61.0
6	장비	일본	Tokyo Electron	238	11.2	13.3	21.4	26.4	10.2	12.0	5.8	-22.9	53.1	74.9
6	장비	일본	Advantest	216	1.5	3.6	33.5	31.9	15.4	6.9	-2.9	5.9	63.7	74.7
6	장비	중국	NAURA Technology	90	0.4	0.1	0.8	43.4	8.5	-7.8	-11.7	-30.3	31.5	34.3
6	장비	미국	Teradyne	85	0.0	0.1	15.1	37.1	14.3	3.0	13.0	-17.1	45.2	107.4
6	장비	중국	AMEC	62	0.3	-0.3	11.8	58.7	9.0	-8.8	-13.2	-32.0	50.0	74.2
6	장비	일본	Disco	54	1.3	2.1	6.7	29.4	8.0	9.9	-2.9	-29.1	-10.3	20.3
6	장비	일본	Lasertec	33	-0.1	0.2	3.3	34.1	11.0	5.2	18.7	-17.2	17.0	39.3
6	장비	한국	한미반도체	24	0.0	1.6	-3.7	55.6	21.0	5.3	17.9	-0.8	-2.3	101.9
6	장비	네덜란드	BESI	24	0.0	0.0	5.4	31.8	18.5	1.2	-2.9	-33.2	10.8	44.3
7	소재	일본	Shin Etsu	102	0.4	-0.0	-2.8	18.6	2.3	3.1	0.4	-14.0	-3.1	24.7
7	소재	일본	Hoya	68	-0.4	0.7	3.3	26.9	7.4	4.3	-3.4	-9.1	-12.7	0.2
7	소재	미국	Entegris	32	0.0	-0.0	8.2	32.2	4.9	2.1	14.2	-14.3	42.0	83.3
7	소재	일본	Resonac	25	0.8	2.1	7.2	19.8	3.2	9.3	-6.1	-14.2	45.6	132.8
7	소재	일본	NGK Insulators	13	0.0	0.0	4.0	16.8	1.8	4.6	4.0	-27.0	36.9	65.7
7	소재	일본	SUMCO	10	-9.6	-7.8	19.2	70.0	2.0	9.5	-3.4	-17.7	86.6	131.7
7	소재	일본	Tokyo Ohka Kogyo	9	1.8	1.8	6.0	21.1	3.6	6.7	0.1	-23.9	13.3	49.0
8	후공정/패키지기판	대만	ASE	134	0.0	0.9	15.0	26.9	6.7	1.4	13.2	4.3	100.7	183.2
8	후공정/패키지기판	대만	Unimicron	82	-0.1	1.0	27.4	33.1	11.3	1.3	5.9	10.0	138.6	435.2
8	후공정/패키지기판	일본	Ibiden	54	-0.1	2.6	17.1	60.9	9.0	12.9	9.4	-7.3	183.9	228.6
8	후공정/패키지기판	일본	Kyocera	45	4.3	6.4	17.4	27.8	1.4	1.0	1.3	3.2	53.6	69.1
8	후공정/패키지기판	대만	Nanya PCB	37	0.6	1.1	29.3	35.0	12.4	10.7	8.1	13.1	131.5	457.2
8	후공정/패키지기판	대만	Zhen Ding	24	0.0	1.6	12.3	21.6	3.4	7.2	5.5	-19.5	125.4	259.5
8	후공정/패키지기판	대만	Kinsus	22	1.9	3.1	14.0	42.3	9.1	7.1	7.9	9.1	180.4	532.1
8	후공정/패키지기판	미국	Amkor	18	0.0	0.0	16.0	19.3	2.2	-1.8	9.6	-39.1	27.4	33.3
8	후공정/패키지기판	대만	KYEC	16	0.0	0.3	0.0	22.5	5.3	-3.1	9.1	-8.0	14.1	25.4
8	후공정/패키지기판	한국	LG이노텍	13	-0.7	-1.4	5.6	13.2	1.8	5.4	-6.3	-42.0	82.2	109.4
8	후공정/패키지기판	대만	Powertech	9	0.0	1.7	0.8	17.4	3.0	1.0	0.9	-12.5	50.6	70.6
8	후공정/패키지기판	한국	이수페타시스	8	0.0	-0.1	9.3	21.4	6.3	-3.2	3.0	-0.7	9.4	-3.2
9	서버시스템/부품	미국	Dell	464	0.0	3.7	38.7	18.6	44.9	-2.2	17.9	24.9	228.3	331.3
9	서버시스템/부품	대만	폭스콘	151	1.3	2.7	8.5	11.1	1.7	-1.8	-0.6	3.2	33.5	12.4
9	서버시스템/부품	일본	Murata	133	-0.0	3.4	5.7	33.5	4.7	1.6	6.6	-30.8	123.1	145.2
9	서버시스템/부품	미국	HPE	115	0.9	7.1	14.4	14.0	2.8	2.5	22.4	42.0	184.1	169.2
9	서버시스템/부품	한국	삼성전기	113	0.7	2.8	20.6	40.1	8.7	0.4	7.7	-31.2	252.7	492.2
9	서버시스템/부품	대만	Quanta	58	0.0	0.2	11.2	10.8	4.1	-2.3	0.3	-5.5	23.8	27.8
9	서버시스템/부품	대만	Wiiwynn	50	0.2	1.0	13.1	12.7	5.1	-0.7	-13.4	34.5	90.3	43.0
9	서버시스템/부품	대만	Yageo	48	0.0	4.8	7.7	18.7	2.9	-4.4	-8.2	-51.9	113.9	138.9
9	서버시스템/부품	대만	위스트론	27	2.3	3.8	32.8	8.1	2.1	2.5	3.7	20.7	52.4	27.1
10	DC/인프라	미국	GE 베르노바	343	0.2	0.6	5.0	38.8	14.6	-0.1	4.2	-19.1	16.3	45.7
10	DC/인프라	미국	넥스트에라 에너지	214	-0.1	-0.1	0.0	17.6	2.1	-1.7	-7.5	-13.1	-16.5	-3.6
10	DC/인프라	미국	Equinix	135	0.0	0.1	1.8	53.2	6.9	-2.5	-3.1	-2.5	6.0	34.0
10	DC/인프라	미국	버티브	126	0.5	0.8	4.8	28.3	11.6	-3.0	-6.1	-27.9	3.1	49.0
10	DC/인프라	미국	블룸 에너지	111	0.0	1.3	15.4	63.7	27.1	0.7	31.4	-8.5	131.8	218.8
10	DC/인프라	미국	Digital Realty	90	0.0	-8.0	54.5	55.2	2.5	-3.3	-4.7	-1.6	1.6	15.8
10	DC/인프라	미국	비스트라	63	0.3	-1.7	-9.3	14.2	7.0	0.3	1.1	-12.6	-5.9	-13.9
11	클라우드/SW	미국	알파벳	5680	0.2	0.8	10.7	20.5	4.8	1.9	-0.7	-3.7	26.0	10.1
11	클라우드/SW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5165	0.1	0.1	2.1	24.7	6.4	2.5	-0.1	37.8	43.5	6.7
11	클라우드/SW	미국	아마존 닷컴	3644	-0.1	0.0	14.4	19.3	3.9	-0.0	-6.5	4.5	24.0	7.9
11	클라우드/SW	미국	메타 플랫폼스	2505	0.7	1.5	-7.3	19.3	5.0	-2.5	25.6	28.8	35.4	10.1
11	클라우드/SW	미국	팔란티어	610	0.0	-0.1	12.1	86.6	26.2	-2.5	0.4	60.3	36.0	5.2
11	클라우드/SW	미국	오라클	564	0.0	2.3	1.8	15.0	4.2	-5.0	-9.0	-6.0	-0.4	-28.9
11	클라우드/SW	중국	알리바바	366	0.0	-0.1	-4.6	14.2	1.4	-2.9	-6.4	14.8	-10.8	-24.7

11	클라우드/SW	미국	클라우드플레어	168	0.0	0.0	7.6	216.7	48.8	-1.4	15.8	41.6	78.4	76.2
11	클라우드/SW	미국	코어위브	66	0.5	1.1	-39.7	-	9.9	0.3	3.4	-12.5	26.0	21.7
12	디바이스/세트	미국	애플	6591	-0.0	0.8	-0.4	34.6	34.1	-1.2	4.2	15.2	35.3	22.8
12	디바이스/세트	중국	샤오미	113	-0.5	-1.1	-15.0	17.7	1.8	-3.6	-9.3	16.6	-22.1	-35.8
12	디바이스/세트	중국	Lenovo	74	0.0	0.0	52.5	13.2	4.6	-6.4	15.3	52.1	279.3	278.1
12	디바이스/세트	미국	HP	38	0.0	-0.5	4.8	9.9	30.8	-2.7	3.5	44.0	67.8	45.8
13	로보틱스	미국	테슬라	1900	-0.7	-0.9	-9.7	171.5	12.8	-6.7	1.7	-15.6	-0.1	-21.1
13	로보틱스	한국	현대차	70	-0.1	-1.9	-4.6	7.7	0.7	-2.4	-13.4	-29.7	-26.0	17.8
13	로보틱스	일본	화낙	50	0.0	-0.1	4.4	25.9	2.8	1.6	-1.8	-19.2	8.3	-1.4
13	로보틱스	중국	저장 산화 지능 공제	29	0.0	-0.1	-2.2	29.6	4.0	-0.4	-0.9	-17.7	-16.2	-34.6
13	로보틱스	중국	리더하모닉	10	0.7	-2.2	2.2	193.6	13.0	-4.6	-6.3	-34.5	43.2	42.6
13	로보틱스	중국	유비테크 로보틱스	7	183.6	119.8	402.7	355.7	4.3	-5.9	-11.0	-27.7	-15.2	-41.1
13	로보틱스	한국	로보티즈	4	0.9	0.9	-3.0	223.1	11.5	-5.0	18.9	8.3	17.9	9.6
13	로보틱스	한국	에스피지	2	0.0	0.0	0.0	138.7	7.6	-4.0	4.6	20.2	-9.5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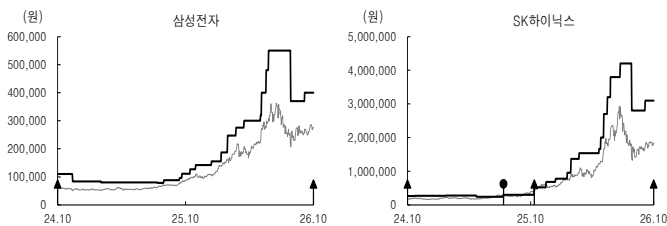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기준일자: 26.09.30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제시일자	투자 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제시일자	투자 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삼성전자 (005930)					2026.09.07	매수	3,100,000	-	-
2026.09.07	매수	400,000	-	-	2026.07.29	매수	2,800,000	-42.88	-38.21
2026.07.29	매수	370,000	-31.73	-23.92	2026.06.25	매수	4,200,000	-49.93	-36.36
2026.05.27	매수	550,000	-44.49	-34.09	2026.05.27	매수	3,800,000	-37.91	-23.18
2026.05.20	매수	480,000	-38.13	-37.60	2026.05.18	매수	3,200,000	-41.11	-35.88
2026.05.07	매수	400,000	-30.00	-26.00	2026.05.07	매수	2,700,000	-31.07	-26.81
2026.05.04	매수	320,000	-16.88	-16.88	2026.04.28	매수	2,000,000	-29.66	-19.95
2026.03.18	매수	300,000	-32.55	-24.67	2026.04.23	매수	1,660,000	-24.28	-22.17
2026.02.23	매수	275,000	-29.93	-20.73	2026.02.23	매수	1,540,000	-35.84	-20.52
2026.01.30	매수	247,000	-31.01	-23.04	2026.01.30	매수	1,370,000	-35.82	-30.73
2026.01.12	매수	187,000	-19.63	-13.16	2026.01.19	매수	956,000	-18.37	-9.94
2025.12.15	매수	155,000	-21.84	-9.03	2025.12.15	매수	782,000	-15.38	-3.32
2025.10.31	매수	142,000	-27.74	-21.76	2025.11.17	매수	680,000	-19.03	-13.68
2025.10.15	매수	127,000	-21.89	-18.03	2025.10.29	매수	520,000	13.77	19.23
2025.09.22	매수	111,000	-21.22	-14.95	2025.10.29	매수	520,000	0.19	0.19
2025.09.15	매수	96,000	-17.24	-16.15	2025.10.13	매수	520,000	-8.35	2.88
2025.08.01	매수	88,000	-19.69	-14.32	2025.07.14	중립	300,000	-2.47	42.67
2025.07.14	매수	78,000	-13.28	-6.92	2025.04.25	매수	244,000	-4.68	21.72
2025.02.03	매수	80,000	-28.59	-20.25	2025.01.24	매수	277,000	-29.61	-21.12
2024.11.14	매수	84,000	-35.00	-30.60	2024.10.24	매수	270,000	-31.75	-16.48
2024.05.16	매수	110,000	-34.12	-20.18	2024.07.25	매수	260,000	-31.80	-23.19

SK하이닉스 (000660)

* 과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투자 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매도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추가하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악화

매수(▲), Trading Buy(■), 중립(●), 매도(◆),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 2025년 5월 12일 기준으로 투자 의견 분류기준 변경(Trading Buy 의견 삭제)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 20% 미만의 추가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금융투자분석사 재량에 따라 '매수' 또는 '중립' 의견으로 제시함

투자 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매도
83.02%	0%	16.35%	0.63%

*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권영배, CFA의 배우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삼성전자 3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권영배, CFA의 배우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삼성전자우 4416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